호수 풍경이 펼쳐지는 최고의 하이킹 코스 4 선.

가을 정취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하이킹 코스

빛깔이 더욱 선명한 최고의 스위스 가을 감상법
걸으며 몸소 체험하는 알프스 가을 풍경
천사의 마을다운 알파인 플로라 트레일
칼날같은 능선 양옆으로 펼쳐지는 호수 파노라마
스위스로도 이어지는 산티아고길 따라 만나는 영혼의 약국
가을 정취 담뿍 담은 샛노란 포도밭 풍경

알프스의 산골짜기와 호숫가 들판, 도심지의 가로수에는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깃들며 피워낸 고운 빛깔의 단풍이 소록소록 피어난다. 9 월부터 일찍 시작된 알프스 산속의 가을에 이어 10 월이 되면 고도가 낮은 호숫가에도 가을 풍경이 담뿍 내려 앉는다. 알프스 깊숙한 산 속 풍경보다 산 위에서 내려다 보는 가을 빛 가득한 호수 파노라마를 즐기거나, 그리 힘들이지 않고 노랗게 변한 포도밭이 펼쳐진 호반을 거닐며 낭만적인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다. 코엘료 덕분에 우리 나라에서 익히 유명해진 산티아고 길은 스위스로도 이어진다. 호숫가 마을의 가을 풍경을 마음에 담으며 영혼의 약국을 찾아 떠나는 고독한 여정을 즐겨도 좋다. 스위스는 11 월부터는 겨울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프스 하이킹을 원한다면 10 월 중순까지가 최고의 하이킹 시기라 보면 된다.

1. 천사의 마을답게 가을 꽃 담뿍 선사하는, 엥겔베르그(Engelberg)

트륍제(Trübsee) – 알파인 플로라 트레일(Alpine Flora Trail) – 오버트륍제(Obertrübsee) - 운터트륍제(Untertrübsee) - 엥겔베르그(Engelberg)

티틀리스 산을 가기 위한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마을, 엥겔베르그는 '천사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다. 여기에서 티틀리스 로테어(Rotair)라는 360 도 회전식 케이블카를 타고 구름을 뚫고 나가 산 정상까지 오르면 중앙 스위스에 펼쳐진 알프스 설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하이킹을 하고 싶다면 정상에서 케이블카를 내려오는 길 중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엥겔베르그와 티틀리스 정상의 중간에 위치한 트륍제 호수 역에서 시작되는 트레일은 플로라 트레일(Alpine Flora Trail)이라는 꽃길로, 아름다운 야생화를 감상하며 오버트륍제(Obertrübsee)로 향하게 된다. 오버트륍제에서 하이킹을 계속 이어가 운터트륍제(Untertrübsee)를 지나 알프스 숲과 들판이 펼쳐지는 장관을 감상하며 엥겔베르그까지 하이킹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걷는 내내 알프스의 봉우리와 초록 풍경이 사방을 에워싸는 그림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구간별 정보

코스 길이	7.5km
소요시간	4 시간
난이도	중간

고도정보

트륍제(1788m) – 알파인 플로라 트레일(1760m) – 오버트륍제(1700m) -운터트륍제(1260m) - 엥겔베르그(1013m)

왕복일정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루체른(Luzern)에서 기차를 타고 엥겔베르그까지 간 뒤, 티틀리스행 케이블카를 타고 트륍제 역에 하차
돌아오는 길: 엥겔베르그에서 기차를 타고 루체른으로 이동

2. 칼날같은 능선 코스를 선사하는 슈토오스(Stoos) 산

클링에슈톡(Klingenstock) - 후저슈톡(Huserstock) - 푸르그겔리(Furggeli) -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에 있는 슈토오스 산에는 능선 코스인 플론알프슈톡 하이킹 코스가 있다. 스위스에서도 이 능선 코스는 아름답고 클래식한 파노라마 코스로 소문이 자자하다. 열 개가 넘는 호수의 풍경과 중앙 스위스의 셀 수 없는 알프스 봉우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가을 정취가 고즈넉하게 내려앉은 리멘슈탈덴(Riemenstalden) 계곡과 우리(Uri) 호수의 파노라마도 이어진다. 슈토오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중앙 스위스의 알프스 파노라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루체른 근교의 슈토오스를 찾아간 뒤, 마을을 조금 걸으면 나오는 체어리프트를 타고 클링에슈톡(Klingenstock)에 내리면 플론알프슈톡까지 이어지는 능선 하이킹 코스가 나온다. 로트 투름(Rot Turm)을 지나 놀렌(Nollen) 방향으로 이어지는 능선 코스는 360 도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후저슈톡(Huserstock) 뒤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푸르그겔리(Furggeli)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이 길의 일부는 암석을 깎아 만든 것으로, 스틸로 만들어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안전하다. 푸르그겔리에 있는 알프스 오두막에서 마지막 오르막길을 오르면 슈비츠 칸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이 나온다. 이 곳이 바로 프론알프슈톡의 정상이다. 약 2 시간 30 분간의 황홀한 하이킹이 끝나면 다시 체어리프트를 타고 슈토오스로 내려오면 된다. 이 능선 코스 전체는 두 명이 걷거나 지나치기에 충분한 너비이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좋다.

구간 정보

코스 길이	5km
소요시간	2 시간 30 분
난이도	중간

고도정보

클링에슈톡(1935m) -후저슈톡(1904m) - 푸르그겔리(1732m) - 프론알프슈톡(1922m)

왕복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루체른에서 기차를 타고 슈비츠(Schwyz)에 내린 뒤, 퓨니큘러를 타고 슈토오스에 하차. 마을 내 체어리프트를 타고 클링에슈톡에 하차.
돌아오는 길: 프론알프슈톡에서 체어리프트를 타고 슈토오스로 내려온 뒤, 슈비츠까지 퓨니큘러를, 이후 기차를 타고 루체른으로 이동.

3. 산티아고 길 따라 만나는 영혼의 약국, 생갈렌 보덴제 지역(St. Gallen-Bodensee Region)

로르샤흐(Rorschach) - 슐로스 술츠베르그(Schloss Sulzberg) -운터레겐(Untereggen) - 마르틴브뤼케(Martinsbrücke) -노이도르프(Neudorf) – 생갈렌(St. Gallen)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스위스 동북부에 바다만큼 큰 보덴제(Bodensee) 호수는 콘스탄스(Constance) 호수로도 불린다. 이 곳에 있는 작은 마을, 로르샤흐(Rorschach)에서 가을 빛깔 고운 풍경을 감상하며 하이킹을 시작해 생갈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코스가 있다. 특히, 이 코스는 산티아고 길(Jakobsweg)의 일부로, 스위스에서 만날 수 있는 순례길이기도 하다. 이 코스의 시작은 로르샤흐 마을의 크로넨플라츠(Kronenplatz) 광장에 있는 야콥스브룬넨(Jakobsbrunnen) 분수대에서 시작한다. 1834 년까지 야코부스(Jakobus) 예배당이 서 있던 자리로, 예배당의 작은 종이 분수대의 일부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이 종은 매일 오전 11 시와 저녁 6 시에 예배 시간을 알리며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 이 곳에서 시작하는 산티아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스러운 들판과 숲의 풍경이 이어지다 그림같은 연못에 자리한 슐로스 술츠베르그(Schloss Sulzberg) 성이 나온다. 뫼텔리슐로스(Möttelischloss)라고도 불리는 성이다. 길은 운터레겐(Untereggen) 마을을 지나고 마르틴슈토벨(Martinstobel) 골짜기를 따라 이어지며 아름다운 마르틴브뤼케(Martinsbrücke) 다리를 지나 노이도르프(Neudorf) 마을을 거쳐 생갈렌으로 향한다. 생갈렌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도원 도서관을 꼭 둘러보아야 한다. '영혼의 약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서관에서 이 아름다운 순례길을 마무리하기 좋다.

구간 정보

코스 길이	14km
소요시간	3 시간 30 분
난이도	쉬움

고도정보

로르샤흐(398m) - 슐로스 술츠베르그(548m) -운터레겐(622m) - 마르틴브뤼케(570) -노이도르프(660m) – 생갈렌(668m)

왕복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취리히에서 기차를 타고 로만스호른(Romanshorn)을 거쳐 로르샤흐에 하차
돌아오는 길: 생갈렌에서 기차를 타고 취리히에 하차

4. 제주 올레길과 우정의 길 협약을 맺은 샛노란 포도밭길, 라보(Lavaux)

생사포랭(St-Saphorin) – 리바(Rivaz) - 에뻬쓰(Epesses) - 뤼트리(Lutry)

길이 30km, 너비 약 250 만평에 달하는 스위스 최대의 와인 생산지, 라보(Lavaux) 포도밭은 2007 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와인 생산지로, 고대로부터 로마인들이 즐겨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인들은 이미 B.C 1 세기부터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라보의 언덕에 포도를 재배하였고, 1,000 년 뒤에는 수도승들이 전통을 이어받아 포도를 재배하였다. 고급 와인 애호가라면 무척 귀에 익을 생 사포랭(St-Saphorin), 데잘레이(Dézaley), 에뻬쓰(Epesses) 등의 와인이 생산된다. 호숫가 언덕에 조성된 포도밭 담장을 따라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즐겨볼 수 있다. 게다가 포도밭을 마주하고 있는 바다같은 레만 호수와 그 너머로 펼쳐진 알프스 봉우리가 기막힌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가을이면 노오랗게 변한 포도잎이 더욱 낭만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그 중 추천할 루트는 생사포랭(St-Saphorin)에서 뤼트리(Lutry)까지 이어지는 포도밭길로, 총 3 시간이 소요된다. 포도원 테라스를 따라 걸으면서 레만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길가에 위치한 가지각색의 레스토랑에서 스위스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와이너리에서는 포도주를 시음할 수도 있다. 중세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생사포랭에 들르면 옛 풍취가 물씬 나는 좁다란

골목길 사이로 16 세기에서 19 세기 사이에 지어진 유서 깊은 포도원을 방문할 수 있다. 100 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3 층짜리 레스토랑 오베르주 드 롱드(Auberge de l'Onde)는 옛 여인숙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명소이다. 맛깔 난 스위스 전통 음식은 물론, 매주 음악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뤼트리까지 이어지는 포도밭길에는 와인 셀러와 전통적인 펍이 곳곳에 자리해 있는데, 휴식겸 들러 샤슬라 한잔을 마셔보아도 좋다. 뤼트리에서는 등반객들이 열차 안에서 쉬면서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라보 익스프레스'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구간 정보

코스 길이	11.7km
소요시간	3 시간 15 분
난이도	쉬움

고도정보

생사포랭(400m) - 리바(440m) - 에뻬쓰(404m) - 뤼트리(373m)

왕복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생사포랭까지 기차로 이동하거나 리바(Rivaz)에서 크루즈를 타고 생사포랭으로 이동.
돌아오는 길: 뤼트리역에서 기차 혹은 크루즈 이용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